

‘준 킬러문항’ 변별력은?...교육계 ‘술렁’

9월 모평부터 난도 하락 예상...난이도 조절 관건 광주진학부장협의회, 내일 수능 출제 경향 설명

정부가 올해 대학수능능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기로 함에 따라 입시 최일선인 고등학교 교육현장이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준 킬러 문항’ 출제 등 난도 예측이 잇따르면서 당장 오는 9월 모의평가에 이어 수능 난도가 예년보다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에 참석해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그간 논란이 돼 온,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의 변별성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었다”고 킬러 문항을 직접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이 부총리까지 나서 킬러 문항 배제라는 보다 구체적인 출제 방향을 공언한 셈이다.

때문에 올해 수능은 물론, 수능 직전 난도를 예측할 수 있는 9월8일 예정된 평가원 주관 9월 모의평가에서도 킬러

문항은 자리를 잡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이 부총리가 ‘적정 난이도’를 언급한 터라 킬러 문항 자리는 ‘준 킬러 문항’이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육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300만명이 가입한 수능 관련 커뮤니티 ‘수만회(수능 날만점시험지들휘날리자)’에서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수능 킬러 문항을 없애면 사교육 열풍이 불어올 것이다. 내신, 수시, 면접, 논술 등으로 과도하게 쏠린다”며 “국어영역은 문해력, 독해력을 공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새로운 글(비문학)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킬러 문항을 안내겠다고 하면 몰수능이 될 걸로 보는데, 한 두 문제로 등급이 가려져 억울한 학생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오히려

정시보다 논술 등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킬러 문항’ 배제 발표와 관련해 문의가 잇따르자 광주에서는 광주진학부장협의회가 오는 21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2024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협의회는 우선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 대해 일선 학교 현장과 수험생이 수능을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분석한 내용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수능 난도에 대한 말이 나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출제될 경향이 높은지 진학부장협의회 차원에서 설명할 예정”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 불안하고 궁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다이지·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 해돋이 05:18 해질 19:50
🌙 달돋이 06:37 달짐 21:52

광주	구름많음	21/30
목포	흐림	21/27
여수	맑음	20/25
나주	구름많음	20/28
완도	흐림	21/25
구례	맑음	18/29
강진	흐림	20/26
해남	흐림	20/28
장성	구름많음	19/29
보성	흐림	19/25
순천	맑음	20/27
영광	구름많음	20/29
진도	흐림	20/26
흑산도	흐림	20/28
고흥	맑음	19/25

●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50 🚗 빨래 50 🚗 세차 50 🏃 운동 80

모자 챙기세요 실외건조 좋아요 세차하기 좋은날 준비운동은 충분히

●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1.0	0.5-1.0
남부 먼바다(북)	1.0-2.5	1.0-2.5
남부 먼바다(남)	1.0-2.5	1.0-2.5
남해 앞바다	0.5-1.5	0.5-1.5
서부 먼바다(동)	1.0-2.5	2.0-3.0
서부 먼바다(서)	1.0-2.5	2.0-3.0

●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목포	03:43	08:58
	15:23	20:45
여수	10:09	04:19
	22:50	16:12
녹동	10:46	05:32
	23:32	17:03

● 전국 날씨

날짜	광주	서울	강릉	대구	제주
6월 21일(수)	☁ (22/26)	☁ (20/24)	☁ (19/24)	☁ (20/27)	☁ (22/26)
22일(목)	☁ (20/28)	☁ (19/27)	☁ (20/27)	☁ (20/30)	☁ (21/26)
23일(금)	☁ (20/30)	☁ (20/29)	☀ (20/27)	☁ (20/30)	☁ (21/27)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화순전남대병원·전남대병원 美뉴스위크 ‘아태 최고 암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과 전남대학교병원이 뉴스위크가 선정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암 치료 잘하는 최고의 병원’에 이름을 올렸다.

19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최근 ‘2023 아태(APAC) 지역 최고의 병원(2023 Asia Pacific Best Specialized Hospital)’ 임상 분야별 순위를 홈페이지와 지면을 통해 발표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종양학(Oncology) 분야에서 아시아태평양 75개 의료기관 중 30위를 차지했으며, 전남대병원도 70위에 랭크됐다. 화순전남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은 ‘아태 지역 최고 병원’ 종양학 분야로 선정된 국내 16개 의료기관 중 비수도권으로는 유일하다.

/오복기자



모기 퇴치 방역. 폭염특보가 이어진 19일 광주 북구보건소 감염병예방팀 직원들이 관내 임동 한 하천에서 때 이른 무더위로 활동이 빨라진 모기 퇴치 방역을 하고 있다. /김애리기자

신안 흑산도서 통일신라시대 사찰 건물지 확인

2021년부터 무심사지 발굴 조사...축대·석렬 등 유구 확인

신안군 흑산도에서 통일신라시대 사찰 건물지가 확인됐다.

신안군은 상라산 동쪽 기슭에 있는 흑산도 무심사지 발굴 조사에 대한 현

장자문위원회를 흑산도 현장에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2021년부터 (재)불교문화재연구소를 통해 발굴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 결과 통일신라

시대 건물지 2동, 축대, 석렬 4기 등의 유구를 확인했다. 인화문 토기편을 비롯해 금동불상 발편, 중국제 도자기편, 연화문 막새편 등도 출토됐다.

흑산도는 고서에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흑산도 관사와 봉수대가 있었다

고 기록돼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무심사지 주변 상라산성, 제사터, 관사터 발굴조사에서는 중국제 동전과 도자가 다수 확인돼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동아시아 남북항로의 해상 무역 거점항으로 이용됐던 것으로 보인다. 2009년부터 여러 차례 시굴, 발굴 조사가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사적 확인과 사찰의 성격 규명 등에 대해 명확한 결과들이 확보되지 않았다. /신안=양훈기자

‘광역상수원 수질 개선’ 지역민 직접 나선다

영산강청 “매수 토지 관리 44개 주민단체 참여...일자리 창출”

주암호 등 5개 광역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해 매수한 토지를 지역 주민이 직접 관리한다.

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풀베기, 덩굴제거 등 매수 토지 관리를 지역민들이 직접 수행하는 ‘지역 주민 참여형 매수 토지 관리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오고 있다.

영산강청은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9년 16개 주민단체 (2억1천만 원 규모)로 관리되던 매수 토지는 2020년 22개 주민단체 (3억 규모), 2021-2022년 42개 주민단체 (5억8천만 원 규모)로 확대 추진됐다. 올해는 6-10월 화순, 강진, 광양, 담양, 보성, 순천, 영암, 장흥 등 8개 시·군 44개 주민단체를 선정해 매수 토지 약 1,8㎢ (축구장 210여 개 면적)를 대상으로 6억5천만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선화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매수 토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복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인증캠페인

어머님의 마음을 만나다

문의 광활함 시장

광주 말바우 시장

말바우시장은 광주 북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입니다. ‘말바우시장’이라는 이름은 말 발자국 모양의 바위 (말바우)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현재는 그 말바위는 없어지고 건물들이 들어섰는데 그 건물 사이 골목을 중심으로 장터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 광주시 북구청으로부터 인정시장으로 등록되고, 최근 2015년에는 중소기업청 “골목형 특성화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의 계속되는 발전을 보이고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담양, 곡성, 장성, 화순, 순창 등의 주변 시골에서 농민들이 직접 경작한 생선품을 가지고 나와서 물건을 파는 전통적거래 장으로 보다 더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한 것만 주고 싶은 마음
하나라도 더 챙겨주는 마음
살가운 정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주는 **1석 3조** 혜택을 누리세요~!

- 혜택1: 대형마트보다 20%나 저렴!
- 혜택2: 온누리상품권 5% 추가 할인!
- 혜택3: 사용금액 40% 소득공제!

착한가격! 신선한 상품! 인심에 더하여 정(情)까지!

시장구분 : 인정시장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190-9
개설일 : 공식등록일 2005년

· 점포수 : 511개소 (노점상 900여개)
· 시장면적 : 68,712m2(20,685평)

· 주요취급품목
- 수산 · 견어물, 농산물, 식품 · 음식점, 축산 · 건강원, 의류 · 기타
◆말바우시장 상인회 : 062-262-4082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광주광역시북구 GWANGJU CITY BUK-GU

문의 : 062)650-2099